

디자인의 덕목 (The Virtue of Design Furniture)

1. 전시개요

제 목 : 디자인의 덕목 (The Virtue of Design Furniture)

일 시 : 2012. 2. 29(수) - 3. 20(화), 21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출품작 : 디자인가구 6점, 조명 3점, 고미술 9점, 회화 6점

출품작가: 추사(秋史) 김정희, 로낭과 에르완 부홀렉, 헬라 용에리위스, 피에르 샤르팽, 마르탱 세클리, 제임스 얼바인, 프론트 디자인, 프랑수아 모렐레, 이우환, 정상화, 천원지

2. 전시내용

학교재에서는 ‘디자인의 덕목The Virtue of Design Furniture’ 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한국 전통 고가구, 현대 디자인 가구와 회화작품들을 통해 디자인이 지향하는 덕목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디자인은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순수미술과는 구별된다. 생활필수품으로서 가구가 갖춰야 하는 실용성을 심미성에 접목시키는 문제는 가구 디자이너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가구의 기능적, 합리적 부분을 망각한 채 심미성의 추구에만 집중하면 비실용적인 가구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는 가구 본래의 속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구는 미를 추구하는 인간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가구 디자이너들이 심미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본 전시에서는 실용성과 심미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한국 전통 고가구, 현대 디자인가구를 모노크롬 회화들과 함께 선보인다. 동서양의 경계를 초월, 단순함에 관심을 기울인 이 가구들은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여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모노크롬 계열 작품들과 일맥상통한다.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전통 고가구인 강화반달이와 고미술품인 책가도, 판전 현판 탁본과 유럽 출신으로 전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인 헬라 용에리위스, 로낭과 에르완 부홀렉, 마르탱세클리, 피에르 샤르팽, 프론트 디자인, 제임스 얼바인의 가구와 조명 20여 점을 전시한다. 이 가구들은 제품의 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실용성을 만족시키며 비례와 변형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선한 심미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이우환, 정상화, 프랑수와 모렐레, 천원지의 작품들은 절제로 단순화한 화면을 통해 디자인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돕는다.

3. 전시주제

디자인의 덕목

일반적으로 가구는 실내에 배치하여 생활에 사용, 편리를 도모하는 도구를 총칭한다. 가구는 19세기 미술공예운동의 전개와 함께 아르누보와 바우하우스 운동이 일어나며 아름다움과 쓰임새의 합목적성을 동시에 지닌 조형물로서 그 가치를 높여 왔다.

이러한 가구 형태의 디자인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몇 가지의 기본 원칙들이 있다. 첫째, 가구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쓰기 편리해야 한다. 둘째, 제품의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을 높이며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한다. 셋째, 재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이고 동시에 견고해야 한다. 넷째, 가구는 실용 도구인 동시에 실내의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형태, 색채, 재료의 아름다움이 요구된다. 또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구 디자인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좋은 가구는 이러한 조건들이 각각 요구하는 바를 살려 한층 높은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유럽 디자이너들이 기능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한 가구들을 선보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루이스 설리반의 말과 같이 가구는 사용할 때 편리해야 하며, 그 다음에 조형적으로 아름다울 때 잘 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시공을 추월하여 가구가 갖춰야 하는 기본과 정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뺄셈의 미학

단순함에 대한 추구는 늘 중요한 화두였으며 복잡성이 더해가는 요즘 더욱 가치가 빛난다. 단순하다는 것은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가구들은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고 깔끔한 형태를 추구한다. 물건의 쓰임새를 극대화하고 기능성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되 빼어난 미적 완성도를 보인다. 이는 더하는 것 못지 않게 과감히 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르탱 세클리, 피에르 샤르팡, 프론트 디자인, 제임스 얼바인은 요구되는 기능에 맞춰 구조를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사용하여 가구를 완성한다. 헬라 용에리위스와 로낭과 에르완 부홀렉은 직선의 기하학적 질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유기적이며 개성 있는 선들의 질서체계를 통해 모던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일정한 질서체계와 비례구조를 바탕으로 단순화된 가구들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실용적이며 인간을 배려하는 철학이 녹아있다.

전시장의 이우환, 정상화, 천원지의 모노크롬 회화는 위의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뺄셈의 미학을 절제된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이 작가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방식들의 추구를 통해서 자기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단순해 보이는 가구와 모노크롬 회화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이 전시를 통해 시각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화려함과 혼란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동서융합의 장

전시는 우리의 전통가구와 서양의 현대 디자인 가구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같은 용도의 가구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디자이너 개인의 개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 조형미를 드러내는지 보여준다. 디자이너 개인들이 실용성과 심미성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한 디자인의 덕목이 과연 무엇인지 집중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각 가구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시장을 구성하였다.

마르탱 세클리의 붉은 테이블과 우리나라 전통 소반들은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감각의 차이를 보여준다. 세클리의 테이블은 현대의 세공 기술로 완벽한 원형을 만들고 그 위에 형태에 원색을 사용하여 완벽미를 느끼게 하고 통나무와 종이로 제작된 우리의 소반은 수작업으로 완성되어 울퉁불퉁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서랍장이지만 강화반단은 균형감 있는 형태로 안정감을 추구한 반면 프론트 테이블의 서랍장은 분리된 형태로 불안정하지만 신비로운 느낌을 체험하도록 한다.

4. 작품소개



추사 김정희, 1856년

판전

이것은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쓴 봉은사 판전 현판의 탁본이다. 판전은 불교 경전을 새겨 놓은 목판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이 현판의 글씨는 노숙한 명필의 경지를 잘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낙관부분에서 ‘칠십일과병중작’이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현판의 글씨는 추사가 생을 마감한 1856년에 쓰여졌다. 일설에 의하면 이 글씨를 쓴 3일 후에 추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조선 후기 학자이자 서화가인 김정희는 소년시절부터 북학파의 박제가에게 학문을 배우며 성장했고, 24살 때에는 아버지의 청국사행에 자제군관으로 동행하여 청의 문물을 접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중국의 유명 사체들과 연을 맺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정법(正法) 서체 외에 옛 한나라비석에 새겨진 예서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이후 한례(漢隸)의 필법을 연구, 해서에 응용하는 등 역대 명필들을 연구하여 그 장점만을 모아서 독특한 추사체를 완성시켰다. 추사체는 굵기의 차이가 심한 필획과 각이 지고 비틀어진 듯하면서도 과격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판에서 추사는 기교가 느껴지지 않는 굵은 필획으로 기존과 아주 다른 형태의 글씨를 보여준다. 이는 당시 유행하였던 조선 백자를 떠오르게 하는 단순한 형태로 순박미와 토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여기서 일생동안 연구하고 연마한 화려한 필체를 모두 소화하여 결국 그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루는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다.

강화반닫이



강화반닫이
소나무,
77.5 x 91.5 x 50 cm,
19세기

장방형으로 짜서 물건을 넣어두는 커다란 가구를 궀라고 하는데, 궀 가운데 앞면의 반쪽을 여닫을 수 있게 만든 가구는 반닫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반닫이는 반닫이 중 가장 상품으로 손꼽히며 그 섬세하고 치밀한 세공이 놀라워 조선조 궁궐용으로 많이 제작되었던 강화반닫이이다.

일반적으로 반닫이는 북쪽지방으로 올라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강화반닫이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반닫이들 중에서 높이가 높아 신선한 비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시원한 맛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반닫이가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강화반닫이는 다른 지방의 것보다 훨씬 두툼한 강화도의 소나무를 사용하여 높아진 높이로 자칫 가벼워질 수 있는 느낌을 줄여 무게감과 안정감을 준다. 이 반닫이는 나무판을 이은 각 부분에 직접 손으로 투각하여 만(卍)자와 아(亞)자를 새긴 화려한 무쇠장식을 붙여 기능과 장식성을 동시에 살렸다.



Ronan & Erwan Bouroullec
«CONQUES 5», 2010
Assemblage of five wall light sconces
In black lacquered fiber glass.
Wall light sconce: 35 x 17.5 x 15.5 cm

이미지 사용 시 아래 크레딧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onan&Erwan Bouroullec, CONQUE 5, 2010, Assenblage of five wall light sconces In black lacquered fiber glass, Wall light sconce 35x17.5x15.5cm

©Fabrice Gousset Courtesy Galerie kreoo

로낭과 에르완 부홀렉

(Ronan & Erwan Bouroullec, 1971 & 1976,
프랑스)

“우리의 생활, 환경과 함께 호흡하는 디자인”

로낭 부홀렉과 에르완 부홀렉은 각각 1971년, 1976년에 프랑스 킴페에서 출생한 다섯 살 터울의 형제이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1999년에 공동으로 디자인 회사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십여년 이상 한 몸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밝고 정갈한 분위기 속에 강렬한 색채가 더해진 초기작들로 간결한 형태 속에 부드러움과 기품을 살려 등장과 동시에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디자인과 공예, 재료와 생산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표현하며 독특한 정신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마다 각자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이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여 디자인을 진행하며 일반적인 재료와 형태를 가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디자인들을 선보인다.

본 전시에서는 세 개의 등이 연결되어있는 〈Conques 3〉를 선보인다. 이 단순해 보이는 조명은 쓰임새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매력적인 조형 작품의 차원에 가깝다. 섬유유리로 만들어진 완두콩 모양의 검은색 등은 뒤로 은은하게 퍼지는 빛과 함께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준다. 같은 색으로 무게감이 느껴지는 두께로 늘어진 전선은 자연의 유기적인 형상을 응용하여 벽을 타고 자라는 식물처럼 보이게 한다. 품위를 지키며 자연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적인 느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과 스타일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매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헬라 용에리위스 (Hella Jongerius, 1963,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만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세요.”



Hella Jongerius
“Bead Bulb” lamp, 2005
Rocking lamp with a base in fiber
glass re-covered with a fabric
embroidered “bead bulb jongeriuslab”
and a lampshade in Plexiglas re-
covered with a beads knitting
82 x 42 cm

이미지 사용 시 아래 크레딧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Hella Jongerius, Bead lamp, 2005, Rocking lamp with a fabric embroidered bead bulb jongeriuslab and a lampshade in Plexiglas re-covered with a beads knitting 82x42cm

©Marc Damage Courtesy Galerie kreo

헬라 용에리위스는 산업과 공예, 디지털과 아날로그, 전통과 현대를 혼합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이케아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를 졸업한 그녀는 ‘용에리위스 랩’이란 이름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로테르담에 설립, 현재는 베를린에서 운영하고 있다. 비트라, 이케아, 에비앙 등의 글로벌 기업과 독일의 포슬린 기업 님펜부르크, 네덜란드 세라믹 기업 로얄 티헬라르 마립 등과 함께 가구, 화병, 그릇 등의 세라믹 용품과 패브릭 디자인을 진행하여 독창성을 인정받은 그녀가 디자인한 제품들은 뉴욕의 쿠퍼휴잇국립디자인미술관(the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과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런던의 디자인미술관(the Design Museum)에서도 전시되었다.

일반 스탠드 바닥이 균형 있게 서있을 수 있도록 편편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Bead Bulb>의 바닥은 계란 모양으로 오뚜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등커버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곡선만을 이용하여 완성한 그녀의 작품은 기계적 디자인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섬유유리로 제작한 바디는 ‘BEAD BULB JONGERIUSLAB’ 이라고 쓰여 있는 천으로 감싸있으며 특수아크릴수지로 만든 전등커버는 한쪽에 실매듭으로 마무리 되어있는 비즈를 엮어서 만든 덮개를 쓰고 있다. 이는 공예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그녀의 디자인을 한눈에 보여준다. 재료와 테크닉을 색다르게 혼합하는 그녀의 작업은 획일화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상상력을 더해 독특한 본인의 것으로 만든다.



Pierre Charpin
"Faro" Storage, 2008
Storage made of a varnished aluminium box
and with a painted white steel base
192.4 x 80 x 50 cm

Pierre Charpin
"Lao" multicolored small model, 2010
Lacquered metal
88 x 45 x 115 cm

이미지 사용 시 아래 크레딧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Pierre Charpin, Lao multicolored small model, 2010, Lacquered metal
88x45x115cm

©MathieuRoquignyCourtesyGaleriekreo

Pierre Charpin, Faro Storage, 2008, Storage made of a varnished
aluminium box and with a painted white steel base 192,4x80x50cm

©Fabrice Gousset Courtesy Galerie kreio

피에르 샤르팽 (Pierre Charpin, 1962, 프랑스)

“디자인의 장식은 화려한 시스템이 아닌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

피에르 샤르팽은 부르주의 프랑스국립미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 오브제 디자인과 가구 설계를 하는 프랑스의 대표 디자이너이다. 장식을 단순히 물체의 표면에 적용하는 화려한 시스템이 아닌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요소로 정의하는 그는 조각적인 형태에 생활환경과 융합할 수 있는 색의 사용으로 흥미로움과 친근감을 높인다. 샤르팽은 파리의CRAFT(미술과 디자인의 도자, 에나멜 응용 연구센터, Center of Research on Ceramics and Enamel Application in Art and Design)에 초청받아 세라믹 작업으로 완성되는 실내 장식을 연구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며 알레시, 이세이 미야케, 몬티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의 유명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디자인 작품들은 폼피두센터(the Pompidou Center)와 파리장식미술관(the Paris Museum of Decorative Arts)등의 유명 기관에 소장되어있다.

전시장에는 <Lao Multicolored Small Model>과 <Faro Storage> 2점이 설치되어있다. <Lao Multicolored Small Model>의 경우 다른 길이의 직선이 지루하지 않게 교차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전등은 세 개의 전구에서 나오는 빛으로 각각의 영역을 비춘다. 이 조명은 관람자들이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언뜻 보면 대형 조각 작품 같이 보이는 <Faro Storage>는 새싹이 자라나는 봄날의 연두색에 부드러운 황금색을 섞어 어떤 공간에 설치되어도 부담감이 없다.

마르탱 세클리 (Martin Szekely, 1956년, 프랑스)



Martin Szekely
Table Basse «M.G.D»,
2002, Polished Steel,
Lacquered Aluminum
120 x 36 cm

Martin Szekely
«stone stone» table, 2010
Structure in honeycomb
aluminum and steel all
covered with stone.
75 x 225 x 75 cm

이미지 사용 시 아래 크레딧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Martin Szekely, Table Basse (M.G.D), 2002, Polished Steel,
Lacquered Aluminum, 120x36cm

Martin Szekely, stone stone table, 2010, Structure in honeycomb
aluminum and steel all covered with stone 75x225x75cm

©Fabrice Gousset Courtesy Galerie kreo

“디자인은 최대한의 사람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해야하는 것”

마르탱 세클리의 디자인은 기능이 강조된 형태에 특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살린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프랑스에서 1987년 ‘올해의 디자이너(Design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으며 1999년 중요한 문화적 업적을 남긴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 훈장 기사장(Chevalier des Arts et des Lettres and the Alfred Dunhill)’을 받은 프랑스가 사랑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산업디자인의 목적이 최대한의 사람들이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브제의 사용’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에 핵심을 맞추어 각각의 오브제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재구성하며 뺄셈의 미학을 보여준다. 세클리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얻은 앞선 제작 기술 방법을 바탕으로 나무, 돌, 크리스탈부터 레진, 탄소섬유 등의 가구 제작 재료 중에서 다른 가구 디자이너들이 작업하는데 제약 을 느끼는 재료를 사용, 작품을 완성시킨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의 작품들은 아주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참신한 재료로 구성되어 그 개성을 살린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몽파르두센터에서 "더 이상의 드로잉은 없다 (No more drawing)"라는 이름의 전시를 가진 그의 작품들은 파리의 몽파르두센터 (the Pompidou Center), 파리장식미술관(the Paris Museum of Decorative Arts), 뉴욕의 쿠퍼휴잇미술관(the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미술관(the Israel Museum) 등 세계 유명 기관에 소장되어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둥근 테이블 (M.G.D.)는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선명한 붉은 색의 매력과 함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원형 테이블이다. (Stone Stone)은 커다란 직사각형의 돌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은 단순히 네 개의 다리 위에 매끄럽게 세공한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니콤 알루미늄이라는 철재로 틀을 잡은 뒤 그 위를 돌로 포장한 것이다. 허니콤 알루미늄은 판으로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므로 사용 직전에 판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테이블들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가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재료의 특이성을 보인다.

제임스 얼바인 (James Irvine, 1958, 영국)

“비례와 변형의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하는 디자인”



James Irvine
“Casino”, 2008
Anodized aluminum
162 x 84 x 84 cm

이미지 사용 시 아래 크레딧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James Irvine Casino, 2008, Anodized aluminum 162x84x84cm

©FabriceGoussetCourtesyGaleriekreo

제임스 얼바인(James Irvine, 1958, 영국)은 런던에서 태어나 그 곳의 예술왕실대학에서 공부한 디자이너이다. 그는 1984년 대학 졸업 후 이태리, 밀라노로 삶의 터전을 옮겨 올리베테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컨설턴트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미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hi)의 아래서 산업 제품들을 디자인했다. 이후 얼바인은 1988년부터 밀라노에서 자신의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2000년에 함께 진행한 하노버 시내 버스 디자인이 있다. 그는 2004년에는 영국에서 로열 산업 디자이너(Royal Designer for Industry)로 선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그의 디자인은 균형 있는 형태에 최소한의 변화를 더해 비례와 변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는 보는 이의 긴장과 이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독특한 심미성을 전달한다.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160cm가 넘는 사이즈와 두께가 있는 경질 알루미늄을 재료로 하여 무게감을 높인다.



Front Design
"Divided Sideboard #2", 2007
Structure in M.D.F. lacquered
with metallic paint.
83 x 154 x 38 cm

이미지 사용 시 아래 크레딧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Front Design, Divided sideboard #2, 2007, structure in M,D,F
lacquered with metallic paint 83x154x38cm
©FabriceGoussetCourtesyGaleriekreo

프론트 디자인 (Front Design)

"우리는 예술이 아니라 대량생산을 위한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돋보이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론트 디자인은 소피아 라예르크비스크(Sofia Lagerkvist), 샤를로트 폰 데 란켄(Charlotte von der Lancken), 안나 린드그랜(Anna Lindgren)이 2003년 결성한 스웨덴 국적의 산업 디자인 팀이다. '환상의 여왕들(The Queens of Illusion)'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일상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을 완벽하게 버무려내는 재능으로 디자인을 완성한다. 더불어, 이들은 공중에서 스케치하는 손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3D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고 이를 다시 3D 프린터로 전달하여 제품이 조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등 디자인을 퍼포먼스와 결합하는 창의적인 시도로 미디어와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다. 프론트 디자인은 2007년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미래의 디자이너상(Designer of the Future)'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건축과 주거(Architektur & Wohnen)'와 '엘르 데코(Elle Deco)'에서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전시장에 설치된 <Divided Sideboard #2>는 2007년 선보인 '마술(Magic)' 컬렉션 중 하나이다. 이 서랍장은 마술사들로부터 배운 그들의 작업 비밀과 눈속임 기법을 작품에 녹여내어 따로따로 분리되어 공간 속을 유영하는 형태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깔끔하게 보이는 무채색인 검은색을 입혀 시선이 분산되기 쉬운 디자인에 집중하도록 한다.

프랑수아 모렐레 (François Morellet, 1926, 프랑스)



François Morellet
Négatif no. 11, 2010
Acrylic on canvas on wood,
white neon tubes
165 x 176 cm

이미지 사용 시 아래 크레딧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François Morellet

Négatif n° 11

(d'après Steellifen° 11, 1990), 2010, Acrylic on canvas mounted on wood, white neon tubes, 165x176cm

© ADAGP François Morellet Photo. Charles Duprat

Courtesy the artist and kamel mennour, Paris

프랑수아 모렐레는 기하학적 추상의 거장이자 네온아트
의 선구자로 알려진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우연성, 양면
성, 패러디와 언어유희 등의 다의성이 담겨있으며 작가는 그
가운데 우연과 질서의 시스템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다. 이렇
게 확정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형태와 분명한 구성,
단순한 부속물들을 사용하는 작가는 자신의 눈앞에서 진행되
고 있는 창작 과정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하여 창작 과정에
서 자신의 창조성과 감성을 최소한으로 개입시키며 눈 앞에
보이는 사실성을 중요시한다.

모렐레는 네온을 이용하여 작업한 첫 세대 작가이다.
1963년부터 네온 작업을 시작한 그는 네온 튜브를 제작하여
일정한 공식에 따라 45도의 규칙으로 기울여 벽면에 반복
부착하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원의 일부 형태를 천장에서
부터 늘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하여 네온을 사용하는
유럽의 누보 레알리스트나 미국의 미니멀리즘 작가들과 스스
로를 차별화 시킨다.

전시하는 〈N° 1103/063〉는 그리드, 모노크롬, 그리고 옵
아트의 문법이 완벽하게 종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
에서 90도 회전되어 있는 단색의 캔버스는 정적인 이미지에
서 역동적인 이미지로의 변화를 보여주며 단순하고 안정적이
며 질서 있는 모습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질서가 깨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마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제멋대로 구부러져있는
비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네온은 이 작품에서 캔버
스와 균형을 이루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 사물성에 대한
그의 단호한 의지와 매개체를 엄격하게 절약하려는 의도 그
리고 단순함을 보여준다.

이우환 (1936, 한국)

이우환은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 1958년 도쿄의 일본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편입하였다. 이 시절 작가가 탐독한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론,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 니시다 기타로의 장소론 등은 작가의 예술 활동을 위한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 이우환은 사물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통해 사물과 공간, 상황과 관계 등에 접근하는 '모노하'의 창시자로 불리며 점.선 시리즈와 <바람과 함께>, <관계항> 등의 작품을 통해 미니멀하면서도 사색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07년 제 52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되고 2009년 베니스의 팔라쥬 포르투니(Palazzo Fortuny)에서 개최된 '인피니툼(Infinitum)'전에 참여한 작가는 1997년 11월 아시아 현대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파리 국립 주드뽀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 화제를 모았으며 지난 2011년, 아시아인으로서는 백남준, 중국의 차이귀창에 이어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세 번째 전관 전시인 '무한의 제시(Marking Infinity)'를 열어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대화>는 단순한 붓 터치를 통해 시적인 아름다움과 여백의 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예술은 서구적 담론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미적 구조로 이해된다. 빠름 대신 느림, 시끄러운 소리 대신 깊은 고요, 온갖 효과와 수간의 향락주의적 축적 대신 자기 절제, 반복, 경계의 존중 등 이우환 작품의 모든 요소들은 오늘날 보기 드문 것들이다. 이우환 작품에 대한 성찰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서구의 현대예술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관찰 방법과 사고유형 그리고 생활 일깨워준다.



Lee Ufan
"Dialogue", 2006
Oil on canvas
227 x 182 cm

정상화 (1932, 한국)



CHUNG Sang-hwa
Untitled 73-B
1973
Frottage on canvas,
130 x 162 cm



CHUNG Sang-hwa
Untitled
1985
Frottage on canvas,
130 x 162 cm

정상화는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 작가이다. 그는 1956년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하고 1969년부터 7년간 일본에서, 1977년부터 15년간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그가 해외에서 활동한 기간은 세계적으로 미술의 여러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시기였지만 그는 어느 흐름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전시작품 2점은 작가의 작업 과정인 ‘비위내기’와 ‘채워넣기’를 보여준다. 그는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한 뒤 색이 마르면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네모들로 떼어낸 뒤 물감으로 다시 채워 넣는다.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는 이 행위는 일정 질서와 규칙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나 분출을 용납하지 않는 고도의 수행성을 요구한다. 작가는 이 섬세한 작업과정을 진행하며 작품과 함께 호흡한다. 그의 회화들은 언제나 인간적인 서정성과 질서 있는 구축성을 동시에 공존시킨다.

천원지 (陳文驥, 1954, 중국)

천원지는 상해 출신으로 현재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는 작가이다. 천원지는 중국 평민 출신으로 매우 소박한 기질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예리함과 고요한 사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서 나온 그의 작품에는 심미적인 시각과 사회적 시각이 동시에 체현되어있다.

전시되는 그의 작품 〈Breath in, Breath out〉은 선명한 푸른색을 칠해 착시감을 주는 원형 6개로 구성되어있다. 얼핏 조각이나 설치작품이 아닌가 착각을 낳는 이 작품은 단순한 원형 속에 들숨과 날숨을 시각화 하며 세상에 대한 관조와 사색을 담은 동양적 정신을 보여준다. 작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서구의 모더니즘 등 중국 현대미술의 일반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독자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Chen Wenji
2007, Breath in, Breath out,
Oil on linen, 42 x 42 cm(each)